

‘역대급’ 김도영, 몸값도 ‘역대급’ 예약

‘V12’...돈·명예 다 챙긴 KIA, 연봉협상 주목

최소 300% 이상 인상 유력, KBO리그 새 역사 각인 빅리그 진출 이정후 넘어선 ‘4년차’ 상한가 초읽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올 시즌 연봉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KBO 리그를 뒤흔든 김도영의 몸값이 얼마나 인상될지 야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IA 구단 관계자는 20일 “2025시즌 선수들

연봉 계약이 22일 미국 스포츠클럽프 출국전 모두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21일쯤 연봉 협상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KIA가 통산 12번째 우승의 영광을 재현한 만큼, 구단은 우승 주역들에게 보상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김도영은 2025년 연봉 협상에서 일찌감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의 급상승한 가치를 감안할 때 최소 300% 이상의 연봉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연봉 1억 원을 받았던 김도영이 4억 원 이상의 몸값을 기록한다면 역대 4년 차 최고 연봉 기록인 2020년 이정후(당시 키움·현 샌프란시스코)의 3억9천만 원을 뛰어넘게 된다. 일각에선 더 나아가 5억 원 이상의 계약까지도 점치고 있다.

KIA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김도영의 올 시즌 연봉 계약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몇몇 남은 선수들의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도영은 지난해 KBO 리그 최고의 스타로 발돋움했다. 그는 141경기에 출전해 장타율(0.647)과 득점(143) 부문에서 타격 2관왕을 차지하며 리그 유일의 ‘다관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또한, 지난 시즌 내내 만화같은 역대급 기록들을 쏟아냈다. 월간 최초 ‘10홈런·10도루’를 비롯해 호타존족의 상징 ‘20홈런·20도루’, 역대 2번째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 KBO 최연소·최소경기 ‘30홈런·30도루’, 21세 이하 최연소 최다 홈런, 최연소 100타점·100득점,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 등 엄청난 신기록은 2024리그를 김도영의 무대로 바꿔놨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그는 정규리그 MVP 등 각종 연말 시상식 주인공으로 우뚝섰다.

뛰어난 경기력 뿐만 아니라, 김도영의 존재감은 KIA 구단의 마케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그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 판매 매출만 1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단순히 성적을 넘어, 구단의 상업적 가치에서도 김도영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팀의 성적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KIA에게 김도영은 그 자체로 금메달 같은 존재다.

2022년 신인으로 KBO 리그에 데뷔한 김도영의 첫 연봉은 3천만 원에 불과했다. 이후 2023년 5천만 원, 2024년 1억 원으로 꾸준히 인상됐지만, 그의 활약은 매년 연봉 이상의 가치를 보여줬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고려할 때, 이번 협상에서 구단은 김도영의 기여도에 걸맞은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영의 눈부신 활약과 스타성은 KIA뿐 아니라 리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의 몸값 상승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KBO 리그의 경쟁력을 높이고, 야구팬들에게 더 큰 기대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연 김도영이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역사적인 결과를 써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흥철 기자



여명현 록스LED 대표 광주시핸드볼협회장 당선

“인재 육성·동호인확충 최선”

여명현 록스LED 대표가 광주시핸드볼협회장에 당선됐다.

광주시핸드볼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점기)는 20일 제4대 광주시핸드볼협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등록한 여명현 후보에 대한 임원 적격 심사를 한 뒤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확정해 당선증을 교부했다.

앞서 지난 9·10일 광주시핸드볼협회장 선거 후보자등록신청 접수 결과 여명현 대표가 단독 입후보했다.

여명현 신임 광주시핸드볼협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리는 2월 7일부터 협회장직을 공식 수행할 예정이다.

여명현 당선인은 “빛고를 핸드볼인들의 역량을 결집해 우수 인재를 적극 육성하는 등 광주시핸드볼 위상 제고와 광주체육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청소년들이 핸드볼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시민들은 핸드볼을 통해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호인 확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여명현 당선인은 지난 8년간 광주핸드볼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핸드볼 발전에 앞장서며 광주체육회협력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또 광주무등JC 회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봉사 분야에서도 남다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희중 기자



제4대 광주시핸드볼협회장에 당선된 여명현 당선자가 전임 류석우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핸드볼협회 제공>

전남도청 펜싱팀 에베 박소형 새해 첫 전국대회 ‘금빛 신고’

사브르 전수인 동메달

전남도청 펜싱팀 박소형이 새해 첫 전국대회를 금빛으로 장식했다.

박소형은 20일 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전국남녀중·고등부 펜싱선수권 겸 국가대표선발전 여자 에베 개인전 결승에서 이신희(강원도청)를 11대10으로 힘겹게 물리치며 값진 우승을 신고했다.

16강전에서 팀 동료 김향은을 15대11로 꺾고 기세를 올린 박소형은 8강전에서 팀 동료 김태희마저 13대8로 제압했다.

준결승전 상대는 도쿄올림픽 단체전 은메달리스트 송세라(부산시청).

박소형은 강호 송세라를 맞아 한점씩 주고 받는 팽팽한 접전 끝에 13대12, 극적인 승리를 연출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전남도청 펜싱팀 사브르 전수인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수인은 사브르 여자 개인전 16강에서 양예슬(인천 중구청)을 15대13으로 물리치며 8강에 진출했다. 이어 윤소연(대전시청)마저 15대8로 꺾고 준결승전에 올랐으나 김정미(안산시청)



2025 전국남녀중·고등부펜싱선수권 겸 국가대표선발전 여자 에베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박소형 <전남도체육회 제공>

에게 6대15로 패하며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김용욱 전남도청 펜싱팀 감독은 “새해 첫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 선수들이 동계훈련에서 흘린 땀의 보답이라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얻고 좋은 출발을 해준 선수들이 다음 대회에서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한 줌 후회도 남기지 않도록 더욱 욕심낼 것”

지난해 K리그1 첫발 광주FC 최경록 ‘절반의 성공’ 자평

‘워밍업’은 끝났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플레이 선보일 것 ‘항상 새롭게 도전’...작년보다 더 많은 공격포인트 기록 목표

‘워밍업’을 끝낸 광주FC의 미드필더 최경록이 K리그1 점수에 나선다.

독일에서 10년간 활약했던 최경록은 지난해 광주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에 첫발을 내디뎠다. 아주대 시절 스승인 이정호 감독과 다시 호흡을 맞춘 그는 광주에서의 첫해 34경기에 나와 3골 2도움을 기록했다. 왕성한 움직임으로 광주 공격을 움직인 그는 해외파 베테랑으로 젊은 선수들에게 따뜻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라운드 안팎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최경록은 또 다른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최경록은 “팬들은 첫발이었지만 만족한 시즌은 절대 아니었다”며 “부상 없이 시즌을 소화한 점은 만족스러웠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난 시즌을 돌아봤다.

첫 시즌부터 K리그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며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최경록은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매우 뛰어났고 K리그가 아시아에서 왜 손에 꼽히는 리그인지 느낄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지난 시즌 아쉬운 점으로 공격포인트 생산 능력을 언급한 최경록은 “공격수니까 공격 포인트 부분을 더 해서 팀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며 “저번 시즌보다 공격포인트를 더 많이 쌓고 기증에 보여줬던 이타적인 플레이와 함께 이번 시즌에는 욕심을 더욱 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시즌을 평가해준다면
-팬들은 첫발이었다. 만족한 시즌은 절대 아니다. 점수로 매기면 나만 봤을 때는 40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팀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만족한 부분은

지난 시즌 40경기 정도를 뛰었다. 부상 없이 40경기를 소화했다는 점, 감독님께서 믿고 기용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 그 부분만 만족한 것 같다.

▲새로운 리그에 도전해 본 소감은

-쉽지 않은 리그인 것을 느꼈고, 또 아시아에서 왜 손에 꼽히는 리그인지도 느꼈다. 많은 외국인 선수를 주축으로 하는 팀들을 봤을 때 정말 위협적이었고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너무나 뛰어났다. 해외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같은 언어로 소통할 때 느껴지는 에너지가 달랐다. 해외에서의 경험을 많이 보여주자고 생각했는데 잘 됐던 것 같다.

▲K리그에서 최경록의 매력을 보여줬는지

-아쉬움이 더 많다. 더 잘할 수 있었고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점들은 더 부각해야 할 것 같다. 공격수니까 공격 포인트 부분을 더 해서 팀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골을 잡았을 때 쉽게 연계 플레이도 좋지만 혼자서도 한두 명을 제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점을 극대화시켜 팀을 돕겠다.

▲다른 선수들을 위한 이타적인 플레이가 눈에 띄었는데, 올 시즌에는 욕심을 더 낼 것인지

-올해는 욕심내야 한다. 낼 것이다. 우선 매 경기 목표는 승리니까 이타적인 플레이는 무조건 가져갈 것이고, 더 보여줄 수 있는 파격적인 모습과 일대일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생각하겠다.

▲다시 만난 은사 이정호 감독은 어땠는지

-축구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사람으로서 그렇고 태도적인 부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절 이런 것들 모든 걸 포함해서 너무 많이 배웠다. 그냥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배웠던 것 같다.



지난 시즌 광주 유니폼을 입고 K리그 무대에 연착륙한 최경록이 전지훈련지에서 올 시즌 각오를 밝히고 있다. <광주FC 제공>

▲올 시즌 목표는 무엇인지

-더 많이 이기고 싶고 개인적으로도 공격 포인트를 많이 쌓고 싶다. 저번 시즌보다 더 많이 쌓고 싶다. 부상 없이 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독일에 있을 때 아쉬웠던 부분이 부상이 많았다. 음식 조절도 해보고 다 큰 부분도 많이 했는데 요가 등 스트레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고 노력을 많이 했다. 몸 관리 잘할 것이고, 잘 준비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하겠다.

▲다시 만나게 될 팬들에게 인사를 해준다면

-지난 시즌 많은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지만, 나름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팬분들 덕분에 우리가 많은 힘을 얻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다시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

/박희중 기자

‘렛츠샤인 광주’ (‘LET’S SHINE GWANGJU’)

광주의 모든 영광은 하나의 빛으로



광주FC, 2025 캐치프레이즈 발표

프로축구 광주FC가 2025시즌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한다.

광주는 20일 2025시즌 캐치프레이즈 ‘LET’S SHINE GWANGJU’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2025시즌 캐치프레이즈 ‘LET’S SHINE GWANGJU’는 구단의 정체성인 ‘빛’을 표현하기 위한 이번 시즌 메인 컨셉으로, 유니폼부터 경기장 브랜딩 및 SNS 이미지 등 주요 항목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광주의 빛나는 순간을 팬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K리그와 ACLE 무대에서 광주만의 찬란한 빛을 발하겠다라는 각오를 담고 있다.

광주는 캐치프레이즈 ‘LET’S SHINE GWANGJU’를 각종 구단 제작물과 MD 상품에 삽입해 팬 친화적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며, 경기장 브랜딩 및 SNS 이미지 등 주요 항목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박희중 기자>